



전국한우협회 회장 김남배

한우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무더운 여름 날씨, 가축들도 지치고 우리 축산인들도 지치는 계절입니다. 아무탈 없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 한우산업의 경우 소값 하락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곡물가가 30%나 올라 3~6개월 이내에 사료값 인상이 전망돼 가득이나 가격 하락으로 고심하고 있는 한우산업은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회의를 계속 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10월 이후에는 사료값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 농가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한우산업은 현재 사육두수가 증가해 암소 감축운동에 온 힘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값이 자꾸 하락하자, 암소의 경우 출하물량이 증가하면서 거세우 대비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우리 한우 협회와 한우자조금은 이런 상황에서 한우가격 정상화를 위해 한우 할인판매 행사, 명절 한우 소비촉진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우자조금이 앞장서서 한우 암소고기를 할인해 판매하는 곳에 지원을 하고, 명절 대비 선물세트 보내기 운동 등을 전경련 소속 기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를 하여 실질 소비를 이끌어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비수기를 맞아 한우고기 소비가 쉽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서 명절을 앞둔 소비촉진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회에서는 전국 각 시·군청과 함께 '매주 금요일은 한우먹는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석 전에 최대한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유도해서 많은 물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농가들도 '한우 한 근 더 먹기 운동' 등 우리 스스로 나서서 한우고기를 더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으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우 홍보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1년 이후 한우가격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올 추석 이후까지도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15년 이후 사육두수가 서서히 줄면서 가격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비싼 사료를 먹이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하루하루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농가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한우가격이 많이 하락했다고는 해도 고급육 생산·출하의 경우 좋은 등급의 경우 하락폭이 크지 않으며 암소는 충분히 비육 후 출하해야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출하에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협회에서도 정부, 국회와 함께 다각도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우농가에 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 내도록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난국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육량경**